‘대탈출2’ 예능에 이런 공포라니…제작진에 완전히 졌다

탈출러들과 뇌섹남들 살인감옥 탈출 성공

매번 역대급이다, 레전드다 하지만 ‘대탈출2’는 살인감옥 편이 진짜 역대급 레전드다.

2일 방송된 tvN ‘대탈출2’에서는 무전기를 통해 연결된 탈출러들과 뇌섹남들이 살인감옥 탈출에 성공했다.

‘문제적 남자’ 김지석·이장원·하석진도 탈출러들과 마찬가지로 안대를 끼고 살인감옥에 갇혔다. “밝을 때 나오겠다”며 자신만만했던 뇌섹남들, 하지만 첫 번째 문을 여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첫 번째 관문부터 공대생 자존심을 구긴 이장원과 하석진은 마냥 해맑은 김지석과 달리 의기소침(?)한 모습이었다.

뇌섹남들은 가장 먼저 노트북과 수사 서류를 발견했다. 탈출러들처럼 창고를 뒤져 열쇠를 찾았고 그 열쇠로 또 다른 창고에 들어갔다. 김지석은 제2의 김호들이라고 할 정도로 겁이 많았지만 또 뭐든 뒤져보는 집념이 있어 빠르게 숨겨진 손잡이를 찾았다. 여기에서 무전기와 열쇠를 얻었다. 이장원이 무전기를 켜자마자 피오의 ‘노 히트 노 런’이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탈출러와 뇌섹남은 무전기를 통해 서로 아는 것을 공유하면서 탈출을 도모했다. 탈출러들은 306호 옆방에 갇혀있다고 했지만 뇌섹남들이 있는 곳엔 306호 옆은 그냥 벽이었다. 그런데 신동과 유병재 등이 레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냈고, 김지석이 비상구 뒤에 숨은 레버를 찾아냈다. 첫 번째 협력이 성공하자 전율이 휘몰아쳤다. 또 뇌섹남들이 탈출러들처럼 금고에 키를 끼우려고 할 때 강호동이 말린 것도 신의 한 수.

뇌섹남들은 ‘노 히트 노 런’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벽에 있는 문제를 풀었다. 이장원은 엄살을 부리더니 암산으로 수식을 풀었다. 또 ‘노 히트 노 런’이 4자리 비밀번호라는 사실도 알아냈다. 금고에 비밀번호를 누르자 다시 바닥이 내려갔고 탈출러들은 그 방에서 나올 수 있었다. 뇌섹남들은 방안에 있던 콘센트로 노트북을 충전하고, 공중전화 앞에 있었던 명함에서 비밀번호를 찾아 노트북을 열었다.

탈출러와 뇌섹남은 적극적으로 단서를 공유했다. 탈출러들은 신문지가 붙어 있는 방에서 ‘박강인’이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고, 뇌섹남이 찾은 노트북에는 취조 영상이 있었다. 이를 통해 ‘박강인’의 살해 동기를 추측할 수 있었다. 하석진이 서류에서 본 ‘박강인’ 아버지 ‘박인강’의 사망 일자를 기억해내면서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타자기에 ‘박인강’을 치자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다.

하지만 뇌섹남이 있는 곳은 공간이 드러나지 않았다. 탈출러들이 비밀번호 20자리가 야구 스코어보드라는 사실을 점차 확신할 때 뇌섹남들은 뭘 찾아야할지 헤매는 상태였다. 그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비밀 공간에서 ‘박강인’이 나왔다. 뇌섹남들은 혼비백산하며 달아났다. 그런데 알고 보니 수배 전단을 통해 ‘박강인’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뇌섹남들은 취조 영상에서 얻은 힌트를 통해 거울을 준비해놨고, ‘박강인’을 기절시킬 수 있었다. 영화 빰치는 긴장감과 서스펜스를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며 전율을 안겼다.

비밀번호 20자리의 비밀은 ‘박강인’ 눈썹에 새겨진 문신에 있었다. 롯데 자이언츠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해의 어린이날 경기 스코어였다. 탈출러와 뇌섹남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살인감옥을 무사히 탈출하며 시즌2 대미를 장식했다.

예능과 탈출 모두 완벽했다. 예능은 김지석이 하드캐리했다. 김호들, 김발견 등 첫 출연만에 많은 별명을 얻으며 ‘대탈출2’ 제작진이 탐내는 인재로 등극했다. 호들갑을 떨고 겁을 내면서도 할 건 다 하는 모습이 시청자에게 호감을 줬다. 뇌섹남들도 워낙 오랫동안 ‘문제적 남자’에서 호흡을 맞춰오다 보니 친분에서 나오는 궁합이 좋았다. 하석진은 중요한 단서를 잘 캐치해냈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화법이 드라마틱해서 더욱 긴장감을 높였다.

특히나 스포츠 신문으로 도배된 방에서 ‘박강인’이 전기톱을 들고 나오는 장면은 예능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공포신이다. 귀신이나 좀비 등 비현실적인 요소가 아닌 연쇄살인마라는 실체적인 공포였다. 여기에 창문에 시트지를 덧댄 거울로 방어해야겠다고 생각한 뇌섹남들의 기지가 돋보이는 연출이 시청자들에게 더 큰 쾌감을 줬다. “제작진에게 졌다”라는 강호동의 말이 공감되는 에피소드였다.

‘아스달 연대기’ 시청률 최고 8.2% 기록

‘아스달 연대기’ 송중기-김지원의 푸른 객성으로 엮인 운명의 케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안방극장을 집어삼켰다.

지난 2일 오후 방송된 tvN 주말드라마 ‘아스달 연대기’(극본 김영현 박상연/연출 김원석) 2회는 케이블, 위성, IPTV를 통합한 유료플랫폼 가구 시청률 평균 7.3%, 최고 8.2%를 기록하며 케이블, 종편을 포함해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유료플랫폼/전국 기준/닐슨코리아 제공)

‘아스달 연대기’ 2회에서는 와한족과 함께 살아온 은섭(송중기 분)과 탄야(김지원 분)의 평화로운 일상부터 대칸부대에 침략당해 시련이 닥친 모습까지 격변의 스토리가 80분을 꽉 채웠다. 극 중 꿈을 만난 은섭은 거짓말쟁이로 몰리며 씨족회의에 회부됐던 상황. 씨족어머니의 예언으로 움직이는 와한족은 오래도록 수련을 한 당그리(무녀 분)만이 꿈을 만날 수 있기에 은섭이 꿈을 만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 더욱이 오히려 수련을 통해 꿈을 만나야 할 탄야가 아직 꿈을 만나지 못했던 탓에 와한족은 은섭이 탄야의 꿈을 훔쳤다며 내몰았다. 오직 탄야만이 꿋꿋하게 은섭을 변호했지만 은섭은 말을 훔친 도둑으로까지 몰렸고, 탄야는 번뜩이는 재치로 은섭을 도와주려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은섭은 와한족에게 “정령제까지 말을 타지 못하면 추방당한다”라는 과제를 받고는 시름이 깊어졌다.

반면 탄야는 씨족어머니 후계자가 완벽하게 외워야하는 정령춤을 습득하지 못해 괴로워했다. 정령춤을 수련하면서 계속 틀리자 탄야는 초설(김호정 분)에게 “저는 정령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어머니처럼 정령을 부르는 춤도 외우지 못하고, 여지껏 꿈도 만나지 못하는데 왜 은섭일 따라서 도망치지도 못하죠?”라고 울컥하며 한탄했다. 이에 초설은 “묶여있으니까. 와한족이라는 이름, 탄야라는 이름, 씨족어머니 후계자라는 이름, 푸른 객성 그 예언의 아이라는 이름”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이후 은섭은 초설에게서 와한족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주문을 다 했다면서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떠날 것을 종용받았다. 이에 은섭은 “탄야는 와한의 탄야고, 달새는 와한의 달새고, 모두가 어디의 누구인데 전 대체 어디의 누군가요? 전 무엇의 은섭인가요?”라며 자신의 안타까운 운명에 대해 터트려냈다. 초설은 “그게 네 운명이겠지. 그걸 찾는 게”라면서 은섭의 슬픈 운명을 예고했고 은섭에게 꽃의 정령제까지만 남아있으라고 허락했다.

드디어 꽃의 정령제날, 화관과 분장을 한 와한족 사람들 사이에서 즐겁게 웃던 탄야는 은섭이 참여한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했다. 탄야는 은섭의 얼굴과 가슴에 분을 바르며 꾸며줬고, 은섭은 탄야의 분장한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알콩달콩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은섭은 탄야에게 초설어머니의 춤을 알려주는 가하면, 탄야에게 꿍돌로 만든 목걸이를 걸어주는 등 탄야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냈고, 탄야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은섭과 탄야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이아르크를 침략하러 온 대칸부대가 와한족 마을을 휩쓸었고, 탄야를 비롯해 제압당한 와한족 사람들은 줄줄이 끌려갔다. 이때 멀리서 말을 타고 등장한 은섭이 탄야를 묶어두려 연결했던 줄을 끊고 말에 태운 후 도망치려 했던 것. 하지만 대칸부대 전사가 던진 청동 추가 탄야에 발목에 감겼고, 탄야는 자기를 구하려는 은섭의 손을 막은 채로 “난 푸른 객성의 아이야. 와한과 함께 있어야해”라며 은섭을 밀어 보냈다. 은섭은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게 이름을 달라며 외쳤고, 탄야는 “꿈. 니 이름은 꿈이야. 나의 꿈이자 와한의 꿈. 그러니 꼭 나를 만나러 와야해”라면서 끝내 끌려가는 모습으로 긴장감을 높였다.

그런가 하면 2화 엔딩에는 은섭이 아라문 해슬라가 탔다는 전설속의 말, 칸모르를 타고 달리는 모습이 담기면서 충격을 안겼다. 말을 타고 도망가는 은섭을 대칸부대원들이 쫓아갔지만 부대원들의 말이 어찌된 일인지 움직이질 않았고, 은섭이 저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본 무백(박해준 분)이 “저 말이 칸모르? 저게 칸모르라면, 아라문 해슬라?”라며 놀랐던 것. 대평원을 달리는 은섭과 충격에 휩싸인 무백의 모습이 담기면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더욱이 이어지는 ‘쿠키 영상’에서는 무백이 언급한 ‘아라문 해슬라’에 대한 전설이 담겨 이해와 흥미를 높였다.

‘쇼미더머니8’ 프로듀서 라인업…4팀 체제→2팀 크루 체제

국내 최장수 힙합 프로그램 Mnet ‘쇼미더머니8’가 이번 시즌 프로듀서 라인업을 공개하고 프로듀서 체제의 대대적인 변화를 알렸다.

오는 여름 방송을 시작하는 ‘쇼미더머니8’은 기존의 4팀 체제를 버리고 두 개의 크루 체제를 새로 도입한다. 두 팀의 크루로 나뉜 래퍼들은 랩 배틀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되며 이를 통해 한 층 더 강렬하고 긴장감 넘치는 서바이벌을 선사할 전망이다. 각 크루에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프로듀서 군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힙합 장르의 트렌드에 발맞춰 각자 포지션이 뚜렷한 인물들로 발탁됐다.

먼저, 가장 영향력 강한 래퍼이자 핫한 레이블의 수장 스윙스와 대중을 사로잡는 대체 불가 래퍼 매드클라운, 현 힙합씬의 가장 핫한 아이콘 키드밀리가 한 팀을 이룬다. 여기에 주목받는 영 제너레이션 비트메이커 보이콜드가 가세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폭넓은 음악 스펙트럼의 레전드 버벌진트와 자신만의 색깔로 인정받은 개성파 프로듀서 기리보이, 힙합씬의 절대적인 존재감 비와이, 마지막으로 유니크한 스타일로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비트메이커 밀릭이 한 팀을 이뤄 멋진 경쟁을 보여줄 계획이다.

‘쇼미더머니8’은 이처럼 두 크루의 대결이 될 전망이다. 힙합씬의 역사를 아우르는 선배 아티스트부터 ‘쇼미더머니’에서 독보적 존재감을 드러냈던 현역 아티스트는 물론, 차세대 힙합씬을 이끌 스타일리쉬한 신예 비트메이커들까지 총망라한 이번 프로듀서 라인업은 세분화된 힙합 장르에 맞춘 구성으로 지난 시즌과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이를 통해 “힙합 장르 전반의 문화를 선보이며 힙합 서바이벌의 무한 진화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늘의 운세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음력 5월 2일)

▶쥐띠 주변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이다. 문서관계에 신중을 기하라. ㅁ, ㅍ, ㅊ성씨는 남의 일에 휘말려서 자기 것까지 다 빼앗길 수다. 1, 5, 9월생 큰 작식 관련 근심거리 생길 듯. 매사 언행 조심하고 말을 적게 하라.

▶소띠 매사 꼬이는 것 같아도 약간의 어려움만 이겨 낸다면 반드시 노력의 대가 있을 듯. 추진하고 있는일 서두르지 않는다면 서서히 운이 열릴 듯. ㅇ, ㅊ, ㅂ성씨 애정문제 점검하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 진실된 사랑에는 핑계가 없다.

▶호랑이띠 고생 끝에 낙이 있다. 고비를 넘기고 좋은 시기가 펼쳐지는 날이다. 채무관련 재판 건으로 고심마라. 그대의 마음 하늘이 돕는다. 남자 1, 4, 9월생은 아내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라. 사랑은 표현이다.

▶토끼띠 성급한 행동이 해를 불러온다. 때를 기다리며 자기수양에 힘쓸 때다. 사업이나 가정 문제에는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대처하라. 1, 7, 11월생 진실된 삶을 추구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져야 구설이 없다. 말이 법이 되어야 한다.

▶용띠 자기주장만 내세워 하고자 하는 일 급히 서두르다 보니 벌여만 놓았을 뿐 결과는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격. ㄱ, ㅅ,ㅇ성씨 건강을 지키는 것만이 사업에 성공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때. 1, 5, 8월생 매매건 이익이 없다.

▶뱀띠 계획한 것이나 사업 전망 모두 밝다. 능력주의 시대이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힘껏 밀고 나감이 좋을 듯. 헌 집을 버리고 신축하겠다면 망설이지 말라. 5, 8, 11월생 북, 서쪽에서 좋은 소식 들릴 듯. 웃음꽃 피겠다.

▶말띠 분주하기만 할뿐 소득이 없다. 무엇이든지 신중을 기해 일을 처리하라. 과욕은 버리고 순리대로 분수를 지킴이 좋을 듯. 애정은 꽃이 피다 갑자기 지는 격. 상대를 진실로 마음껏 사랑해줘라. 3, 5, 9월생 남쪽 방해자 조심.

▶양띠 계획한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지금은 참을 성이 필요한 시기. 자신과 싸움 중임을 알라. 금전관계로 구설이 따르니 형제의 도움이 요구된다. 1, 4, 11월생 쥐, 말, 돼지띠 있으면 간청해 보라. 남서쪽에서 귀인 나타날 수.

▶원숭이띠 목적을 위해 물불을 안 가리고 덤벼들었다가 실망이 크겠다. 분수를 지키고 한걸음 뒤로 물러 설 때 좋은 결과 있을 듯. ㅇ, ㅂ, ㅊ성씨 자식걱정하다가 닭과 꿩 둘 다 놓치는 격이니 냉정한 판단이 요구됨. 누군가 도움주면 받으라.

▶닭띠 자신만만해 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겠다. 재물이나 여성 문제로 망신수가 있으니 침착하게 처신하라.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밟히는 법. 자신이 서 있는 현재 위치를 다시 생각해 봄이 좋을 듯. ㅇ, ㅂ, ㅈ성씨 구설이 따르니 주의하라.

▶개띠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허황된 생각은 금물. 권위의식을 버리고 남을 생각해줄 줄 알아야 할 때.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힌다. 좋은 결실 있겠다. 수확이 코앞이니 유념하라. 5, 7, 9월생은 동업을 피함이 좋을 듯.

▶돼지띠 나무에 푸른 잎이 무성하듯 서광이 눈앞에 와 있음을 알라. 빨리 이 운을 잡아라. 말조심을 해야 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결정적 실수를 면한다. 1, 2, 3월생 파란색이 행운의 컬러다. 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어라.